

광주·전남 5개 국제대회 정부지원 받는다

광주 배드민턴·양궁아시아컵, 전남 철인 3종·바둑·대학역도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13개 시·도서 22개 대회 열려

광주·전남 5개 국제경기대회가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 10억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원 사업을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육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을 비롯, 14개 시·도가 38개 대회의 지원 신청서를 냈고 1·2차 심사를 거쳐 13개 시·도의 22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다. 광주에서는 ▲2020 광주코리아 마스터

즈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020 양궁아시아컵 2차대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전남은 ▲2020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제7회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국제경기대회 지원이 확정되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의 참가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지원을 계기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향상과 지역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국제경기대회의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고 대회 이후 결과도 평가하는 등 대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스포츠를 토대로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첨단·비야지역 고속도로 광주시, 간이정류장 추진

'현장 경청의 날' 행사서 이용섭 시장 주민들과 약속

광주시가 첨단·비야지역 고속도로 간이정류장 설치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18일 광산구 첨단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3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첨단·비야지역 고속도로 상행선 설치 민원은 15년 전인 2004년부터 제기됐다. 주민들은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에 내려올 때는 비야 간이정류장을 이용했지만, 상행선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광산구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석해 고속도로 상행선 간이 버스정류장 설치 요청과 관련한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 시공업체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생산설비 구축...연내 착공 2021년 완료, 하반기 양산

광주형일자리 산실이 될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 신축 업체로 (주)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8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서 짓는 완성차공장 신축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마감된 입찰에는 (주)현대엔지니어링·부영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회사측은 1~2일간 입찰제안서 검토 등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낙찰 통보할 예정이다. 완성차공장은 빛그린산단 1공구에 부지면적 60만4508㎡, 건축면적 8만6215

㎡, 연면적 11만7335㎡ 규모로 건설된다. 생산동 3개, 공조실·경비실 등 부속동 13개로 이뤄진다. 회사 본사는 공장동에 들어선다. 자동차 생산 설비 구축은 이번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은 2019년 시공능력평가 7위 업체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건축사업, 인프라 구축, 자동차공장, 화공, 발전 및 에너지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설사다. 현대차 북경 1-4공장, 인도첸나이공장, 기아차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 미국 조지아 공장 등국내외에서 자동차공장 건설 경험이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관계자는 "입찰제안서 검토를 거쳐 금명간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1년 4월까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 설비 구축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양산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광주 빛그린산단에 자동차공장을 건립, 운영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지역 기업 등 36개 기관·기업은 2300억원을 출자해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만들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빛그린 산단에 2021년 상반기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해 같은 해 하반기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안착 권역별 교육

순천 시작으로 27일까지 순회

전남도는 내년엔 처음 시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안착을 위해 권역별 교육을 한다. 동부권인 순천을 시작으로 서부권 무안, 중부권 함평 등을 27일까지 순회하며 시군 읍면동 직원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 도입 취지와 지급 대상 자격, 제외대상, 신청 구비서류 등을 미리 알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돕는다. 특히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농어민 공익수당 정책을 잘 이해하고, 현장 행정을 통해 이·통장과 주민에게 제도를 정확히 소개하도록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전남도와 시군

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유효해두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려면 2020년 1월 20일까지 2월 21일까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 천사김 등 도내 8개기업 수출유공탑

해수부 수산물 유공자 표창 수여식

해양수산부의 '2019년 수산물 수출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주)신안천사김 등 도내 8개 기업이 수출유공탑을 받았다. (주)신안천사김은 수출 5000만 달러로 전국 1위, (주)대창식품이 2000만 달러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수산업체들이 선정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8개 기업 포함 전국 35개 업체가 해수부로부터 수출유공탑을 수상했다. (주)신안천사김, (주)대창식품과 함께 김, 전복, 해조류 등을 수출해 어업회사법인 해송식품(주)과 어업회사법인 케이푸드(주)는 각 500만 달러, (주)삼명비엔에프와 누리(영)는 각 300만 달러, 맛나푸드(주)는 100만 달러, (주)유일은 100만

달러를 받아들여 수상 업체에 포함됐다. 이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미국의 수요 증가로 2018년 1억 9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전북도 한류 확산에 힘입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수산물 수출액은 총 2억2300만 달러다. 품목별로 김 1억 900만 달러, 전복 4500만 달러, 미역 1800만 달러, 톳 1700만 달러, 넙치 3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수출을 계속 늘리기 위해 목포대양산업단지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수산물수출지원센터 조성, 수산물산지공시제 지원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 수출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2년 연속 아동정책시행 평가 '우수'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시행 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평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실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과 추진 방식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지역별 목표, 전략 수립 여부 등 13개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아동정책 전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것이다. 전남도는 ▲학대보호아동 인프라 구축 ▲아동친화도시 조성 ▲국가공모사업 참여도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개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8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개소하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전남 만들기 인프라를 확충한 것도 한몫 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정책지원관은 "앞으로 아동의 건강상 성장 지원과 돌봄체계 구축, 자립 지원 강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